

# “행복한 마을만들기, 곡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서 출발”

### 주민 5명 이상 모여 마을 위한 소규모 공익적 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부터 역량강화 교육 지원해

곡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센터는 곡성군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사업'에 선정돼 지난 9월 개소하게 됐다. 곡성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의 2층에 자리하고 있다. 곡성군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주민 5명 이상이 모여 마을을 위한 소규모 공익

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모사업을 산동면 지리산은 천관광지내에 온천수를 활용한 체험형 물놀이 시설 조성, 산수유관광콘텐츠 개발, 구례산수유 웰니스페스티벌 개최이며 공모사업을 통해 정제되어 있는 지리산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특구 활성화 및 산수유관광 콘텐츠 연구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리산온천권역과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기자



## 구례군,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

###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관광편의 기반 통해 관광객 유치

구례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서울 및 제주도를 제외한 26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구례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육성 및 관광편의 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구례군은 사업비 15억원(국비 7

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동면 지리산은 천관광지내에 온천수를 활용한 체험형 물놀이 시설 조성, 산수유관광콘텐츠 개발, 구례산수유 웰니스페스티벌 개최이며 공모사업을 통해 정제되어 있는 지리산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특구 활성화 및 산수유관광 콘텐츠 연구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리산온천권역과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청년정책협의회, 인구늘리기 운동

### 사회 문제로 인식·문제 해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담양군과 청년정책협의회는 7일 관내 기업체 4곳과 인구감소 문제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협의체는 지난달 16일 1호 협약을 체결 한 후 금성농공단지 입주기업체 4곳과 협약을 체결하며 '담양향 주소찾기 운동' 분위기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경향산업, 태성전기, 세아푸드, 한남산업은 인구 감소 문제를 지역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청년정책협의회는 관내 기

관단체와 기업 소속 직원의 주소 이전 독려, 담양 거주 미전입자 주소 갖기 운동 추진,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 협조 등 민간 부문에서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며 기업체는 직원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 동참과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 홍보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군은 인구 문제 인식 전환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와 인구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늘리기 추진사업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순군,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화순군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1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과 코 일부가 노출되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집회·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주요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

자 등이다. 이외에도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풀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 판매 홍보관, 뷔페 등 12개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피시방 등이 추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등 일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장성군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장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옐로우시티 도시 색마케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성군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주관한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일자리 창출 분야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수여하다. 장성군은 지난해 전남지역 취업자 수 증가율 1위, 고용 증가율 2위, 상용 근로자 수 3위를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장성호 수변길 조성 등의 색마케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점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장성군은 문화·관광 분야와 일자리 창출을 엮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 제조업체 증가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방식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만들기 모델을 제시했다. 기동취재본부

## 민방위특별검열 평가 '우수기관' 쾌거

### 나주시, 주민대피시설 45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높은 평가

나주시는 지난 달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0년 민방위 특별검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민방위 특별검열 평가는 민방위대 창설일(9.22)을 기념, 민방위 업무의 중요성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 시설(대피·급수), 민방위 장비(필수·방독면·분대장비), 비상대피계획 등 6개 분야 36개 항목을 정량 평가한다. 나주시는 비상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시설(45개소) 안내표지판 및 유도판 적정 설치 △노후 비상 발전기 교체 등을 통한 급수 상황 대비 △민방위 필수장비 및 방독면 자체 관리상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구례, 진도군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달 29일 전남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박봉순 나주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민방위 태세 강화와 민방위 시설, 자체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